

사회참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몫

☞ 신동식 (빛과소금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는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변화 가운데 가장 미진한 부분이다. 또한 성경을 강조하는 보수적 교회일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방 이후의 정치적 불안과 6.25로 인한 분단을 들 수 있다. 분단은 오랫동안 권력 기반이 되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해 국민들을 선동했고, 특별히 교회는 반공에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6.25 당시 교회는 공산당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공산당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쪽으로 피난한 이복의 교회들은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반공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이복에 교회를 재건하고자 하였는데, 지금도 대형교단에는 이복지역 노회가 존재한다.

정치세력은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이용하였고 그렇게 50년 이상이 지났다. 이처럼 반공과 기독교의 만남은 한국의 정치를 형성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교회로 하여금 통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종교분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교인들을 매수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사회문제를 말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면 사회참여란 무엇일까? 보통은 정치적 참여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좁은 생각이다. 사회참여는 정치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회참여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 함께해야 변화된다. 그래서 서로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참여에 대한 일반적 이해이다.



성경의 가르침

그렇다면 사회참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한 창조계를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만드시고 위대한 명령-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을 주셨다(창 1:26-28; 2:15). 아담에게 부여한 문화명령은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경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구속사를 담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부부-가족-씨족-부족-민족-왕국-제국-국가 시민사회-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하셨다. 이러한 모든 구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창조계의 모든 현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치·보존하게 하셨다. 이러한 통치의 현상은 오늘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둘째는 인간의 부패성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에는 온갖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살기로 작정한 세상은 점점 포악해졌다. 가인-노아-바벨탑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간악함이 점점 더 드러났다. 사사기는 그 절정을 보여준다. 사 21:25은 인간의 부패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부패한 인간의 소견이 어떠했는가?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은 국가와 정치 체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퍼져 있다. 부패를 막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되고, 영광을 위한 문화의 결실은 왜곡된다. 이러한 불의함을 방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의함을 막기 위해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신다.

셋째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자, 주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현실참여 방법이다. 넷째는 성경에 나타난 국가의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세금과 군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이들의 정당한 행위에 순종할 것을 말하였고(눅 3:12-14),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

씀을 하셨으며(눅 20:24-24; 요 19:10-11), 빌라도의 권세를 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다. 즉, 국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 조직이 아니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를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다.

교회사의 증언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회, 현실, 정치에 참여해 왔을까?

이 문제는 역사 가운데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간단히 스케치해 보아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교회는 펠릭스 가운데 국가에 불복종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로마가 무너지면서 신학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고, 당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나누었다. 그는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현세에 섞여 있으며 구분은 해야 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긍정하고 그것을 영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신의 뜻 즉 영원한 예지에 따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에 국가가 관여한다면 항의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은 예외였다.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는 국가가 시민들의 일반 복지를 실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더 높은 목적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시민들이 지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총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국가의 이해이다.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는 정부를 인간의 사회적 성향이 아닌 죄악의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국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통치자들이 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통치권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루터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불의함을 보일 때라도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소극적인 저항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걸음 더 나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단순히 악을 억제하고 지상의 평화를 실현하는 세속적 영역의 임무뿐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구이며, 정부는 죄악을 억제하고 전체적 타락으로부터 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사역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루터와 같이 저항권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칼빈의 생각은 그의 후계자



들인 베자와 녹스에 의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저항권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자들 이후 역사는 이들의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정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이들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과 영국의 초기 청교도들이었다. 이들의 관점은 결국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국가에 대한 고백을 수록하게 하였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이 출중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였고 많은 이들이 순교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는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노예해방 운동을 하였고, 로버트 레이커스가 시작한 주일학교 운동 역시 사회참여였다.

네덜란드에서는 목사의 정치참여가 자유롭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면서 수상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 참여가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교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치에 동조하여 수많은 이들을 확실한 독일교회와 그들의 만행에 저항한 소수 고백교회의 모습은 교회 현실참여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참여가 지대했다. 조만식 정로가 주도한 국제보상운동, 일본의 지배에 항거한 3.1 운동,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등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근자에 프란시스 웨퍼는 낙태 반대 운동과 안락사 반대 운동을 정치 영역과 연합하여 시도하였다.



실천적 접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참여할 것인가?

사회참여는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성경과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이다. 우선 성경은 위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 권위가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스미션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문화와성경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칙윤리 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간의 사과 -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 변혁의 삶」,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승리」, 「변화는 가능하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 등이 있다.

사회참여의 모습은 다음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1단계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구제와 복지의 의미가 우선될 수 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며 돕는 것이다. 지역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따스함을 맛볼 수 있다. 2단계는 다양한 시민운동 참여로, 주변의 NGO들과 계몽적 성격이 강한 문화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틀을 공문화하여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3단계는 현실 정치 참여이다. 현실 정치 참여는 풀뿌리 참여에서 시작하여 중앙정부의 참여, 즉 정권을 획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정치 영역에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부분이다.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현실참여 역시 중요하다. 불의한 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적극적인 투표행위와 감시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 교회 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교회가 정치적 결사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나치 시대와 같이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의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문제에 침묵하지 말 것을 말씀한다.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투쟁하고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겐 뺨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 웨퍼의 다음 말은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투쟁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해결책만 사용하고 정치적인 면으로 투쟁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반면, 기독교적인 해결책을 쓰지 않고 정치나 법적으로만 해보려는 것도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이다. 그 생각에 있어서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적합한 정도의 시민 저항의 한계선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국가가 그 권위를 팽창시켜 성경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